

—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 목 차 ||

1. 연수 개요

1-1. 연 수 목 적 1

1-2. 연 수 현 황 1

2. 연수 국가 현황

2-1. 벨 기 에 4

2-2. 네 델 란 드 7

2-3. 룩셈부르크 7

2-4. 독 일 7

3. 방문 기관 및 주요 활동 11

3-1. 버지니아 한인회 11

3-2. 한사랑 종합학교 12

3-3. 선진요양시설-NMS Healthcare 14

3-4. 세계유산비교 연구[자유의원신상, 퀘벡역사지구] 17

3-5. Quincy Market, Distillery district 21

3-6. 관광자원 비교 연구 30

5. 연수 후기 38

1. 연수 개요

1-1 연수 목적

- 선진국 우수사례, 시설·현장 벤치마킹을 통해 폭넓은 사고와 시각을 갖추고, 우수정책 시정접목 방안 모색 등 생산적인 의정 활동과 효율적인 시정 정책 제안을 통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함.
- 유럽 대표 관광국가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의 관광자원화 활용 현장 방문으로 우리시 백제역사 유적지구에 접목가능한 방안 연구

1-2 연수 현황

- 기 간 : 06. 21 ~ 06. 29(7박 9일간)
- 연수 국가 :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 연수 인원 : 10명(의원 8명, 직원 2명)

번호	직 책	성 명	임 무	비 고
1	위 원 장	한 동 연	·연수단 총괄	단장
2	부위원장	윤 영 숙	·의원 역량강화에 관한 자료 수집	
3	위 원	조 규 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리 보존 실태 및 관광자원화 현장 자료 수집	
4	"	유 재 구		
5	"	김 수 연		
6	"	김 정 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료 수집	
7	"	김 태 열		
8	"	박 철 원		
9	전문위원	박 종 수	·사진첩제작, 특기사항 및 개요	
10	수행직원	윤 정 진		

□ 연수 일정

일 자	지 역	세 부 일 정 표	비고
제1일 6/21 (수)	익 산 인 천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출발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착 	한국 독일
제2일 6/22 (목)	<p>쾰른</p> <p>룩셈부르크</p>	<p>《역사문화 탐방》쾰른 대성당, 로마-게르만 박물관</p> <p>《역사문화 탐방》1000년 고대도시 룩셈부르크 ◦ 세계문화유산 「북포대」 탐방</p>	<p>독일</p> <p>↓</p> <p>룩셈부르크</p>
제3일 6/23 (금)	<p>브뤼셀</p> <p>암스테르담</p>	<p>《관광자원 견학》유럽의 수도 브뤼셀 ◦ 그랑플랑스-유네스코 지정 보존지역</p> <p>《세계유산 관광자원화 현장》암스테르담 ◦ 운하지구-2010년 지정</p> <p>《자전거 정책 비교》암스테르담 자전거도로</p>	<p>벨기에</p> <p>↓</p> <p>네덜란드</p>
제4일 6/24 (토)	<p>히트호른</p> <p>브레멘</p>	<p>《역사문화 탐방》히트호른 ◦ 지손마을 견학</p> <p>《구시가지 관광》브레멘 ◦ 세계문화유산 - 롤란트 석상, 시청사 등</p>	<p>네덜란드</p> <p>↓</p> <p>독일</p>
제5일 6/25 (일)	<p>함부르크</p> <p>뤼베크</p>	<p>《관광자원 견학》알스터 호수-대형 인공호수</p> <p>《세계유산 관광자원화 현장》뤼베크 구시가지</p>	독일

일 자	지 역	세 부 일 정 표	비고
제6일 6/26 (월)	베를린	《역사문화탐방》유대인 학살 추모관 공원 ◦ 전승기념탑, 베를린 장벽, 제국의회 의사당 《자전거 정책 비교》 ◦ 독일의 DB 공공자전거 서비스(Call a Bike)	독일
제7일 6/27 (화)	포츠담	《역사문화탐방》 ◦ 포츠담화담 장소 - 체찰리엔호프 궁전(세계문화유산) 《초고속 열차 비교 탑승》 ◦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고속철도 ICE(INTERCITY EXPRESS) 체험	독일
제8일 6/28 (수)	프랑크푸르트	《역사문화탐방》 ◦ 뢰머 광장, 괴테하우스	독일
제9일 6/29 (목)	독일	▶ 프랑크푸르트 출발 ▶ 인천공항 도착	대한민국

2. 연수 국가 현황



2-1 벨기에

□ 일 반 현 황

- 수도 : 브뤼셀(약 103만명)
- 인구 : 1,132만명(2015)
- 인종 : 화란어계(56%), 불어계(41%), 이중어계(3%)
- 언어 : 불어, 화란어, 독어
- 종교 : 구교 75%, 기타 25%
- 면적 : 32,545km²(경상남북도 크기)

□ 정 치 현 황

- 정부형태 : 입헌군주국으로 내각책임제
- 상원 : 임기5년, 총60석
- 하원 : 임기5년, 총150석
- 주요 지도자
 - 국가원수 : Philippe 국왕(His Majesty Philippe)
 - 총 리 : Charles Michel
 - 외교장관 : Didier Reynders
- 최근 정치정세
 - 2013.7월 필립 국왕 즉위(제7대)
 - 2014.5월 벨기에 총선후 4개 연정협상 참여정당(화란어권 3당(민족당(NVA), 기민당(CD&V), 자유당(Open VLD) 및 불어권 자유당(MR)) 은 10.7. Charles Michel 불어권 자유당(MR) 당수를 신임 총리로 하는 신정부 구성에 합의, Charles Michel 총리 내각은 10.14. 공식 출범

□ 경 제 현 황

- 주요 경제 지표(2015, IMF)
 - GDP : 4,547억불
 - 1인당 GDP : 40,106불
 - 실업률 : 8.3%
- 교역 규모(2015, KITA)
 - 수출 : 3,987억불
 - 수입 : 3,756억불

○ 경제성장률(GDP기준) : 2.4%('15)

○ 교역규모(2015, KITA)

- 상품수출 : 1조 5,134억불

- 상품수입 : 2조 2,727억불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호통상조약 체결 : 1901.3.23.

○ 대사급 외교사절 교환 합의 : 1961.5.2

○ 공관장

- 주벨기에 대사 : 김형진 대사(2017.1월 부임)

- 주한 벨기에 대사 : Adrien Theatre 대사(2016.9)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2016, 한국기준, KITA)

- 수출 : 24.26억불(건설중장비, 선박, 승용차, 합성수지 등)

- 수입 : 10.73억불(의약품, 기타정밀화학원료, 합성수지, 승용차 등)

○ 투자현황(~2016 누계, 신고기준)

- 대벨 : 111건, 18.79억불(수출입은행)

- 대한 : 230건, 36.50억불(산업통상자원부)

○ 교민현황 : 1,050명(2015)

□ 북한과의 관계

○ 벨기에는 북한 불승인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나, 남·북한 UN 동시가입

이후인 92.4월 북한을 국가로 승인

- 2001.1.23 수교
 - 주벨기에 대사 : 주영국 대사 겸임
 - 주북한 대사 : 주한 대사 겸임
- 통상관계(2015, 북한기준, KOTRA)
 - 수출 : 150천불
 - 수입 : 340천불

2-2 네덜란드

□ 일 반 현 황

- 국명 : 네덜란드왕국 (Kingdom of Netherlands)
- 수도 : 암스테르담(80만명)
- 인구 : 1,698만명 (2016년)
- 면적 : 약 41,526km²
- 종교 : 가톨릭, 개신교 등

□ 정 치 현 황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내 각 : 자민당-노동당 연립정부
- 의회구성 : 양원제

- 상원 75명(자민당 13석, 노동당 8석, 기민당 12석, D-66당 10석, 자유당 9석 등)
- 하원 150명(자민당 33석, 자유당 20석, D-66 19석, 기민당 19석, 녹색당 14석, 사회당 14석, 노동당 9석 등) ('17.3.15 총선 결과)

○ 주요인사

- 국왕 : 빌렘-알렉산더(Willem-Alexander)
- 총리 : 마크 루터(Mark Rutte, 자민당)
- 외교장관 : 베트 쿤더스(Bert Koenders, 노동당)

□ 경 제 현 황

○ 주요경제지표(2015년, 세계은행)

- GDP : 7,525억불
- 1인당 GDP : 44,400불

○ 무역규모(2015년, KITA)

- 수 출 : 5,666억불
- 수 입 : 5,062억불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61.4.4

- 68.12.24 주한네덜란드대사관 개설
- 69.10.15 주네덜란드대사관 개설

○ 공관현황

- 주네덜란드대사 : 이윤영 대사(17.4~)
- 주한네덜란드대사 : A.J.A Lody Embrechts 대사(15.2~)

○ 교 역(2016, 한국 기준, KITA)

- 수 출 : 38.21억불(제트유 및 등유, 건설중장비, 승용차 등)

- 수 입 : 42.30억불(반도체제조용장비,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화물자동차, 고철 등)

- 투자현황 (16년 누계, 신고기준)

- 對네덜란드 : 651건, 152억불(수출입은행)

- 對한 국 : 1,598건, 267억불(산업통상자원부)

- 재외동포('15) : 2,663명(외교부)

□ 북한과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01.1.15

- 주한네덜란드대사가 북한 겸임

- 주스위스북한대사가 네덜란드 겸임

- 교 역(15년, 북한 기준, KOTRA)

- 수 출 : 2.45백만불

- 수 입 : 2.55백만불

2-3 룩셈부르크

□ 일 반 현 황

- 수 도 : 룩셈부르크

- 인 구 : 57만명

- 면 적 : 2,586km² (제주도의 2배)

- 인 종 : 룩셈부르크인, 독일인, 프랑스인

- 종 교 : 가톨릭(87%), 기타(13%)

□ 정 치 현 황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하 내각책임제
- 의회구성 (총60석, 단원제, 13.10월 총선결과)
 - 기독교사회당(23석), 사회당 (13석), 민주당 (13석), 녹색당(6석) 등
- 주요인사 및 소속정당
 - 국가원수 : 앙리(Henri) 대공(2000.10.7 즉위)
 - 총 리 :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민주당)
 - 외교장관 : 장 아셀보른(Jean Asselborn) (사회당)
- 최근 정치정세
 - '13.10월 총선 결과, 기독교사회당이 제1당의 위치를 고수하였으나, 기독교사회당을 제외한 소수당(3개) 연정 출범으로 34년만에 정권 교체
 - '13.12월 신내각 출범

□ 경 제 현 황

- 주요경제지표(2015, IMF)
 - GDP : 574억불
 - 1인당 GDP : 101,994불
 - 실업률 : 6.09%
- 교역규모(2015, KITA)
 - 수출 : 172억불
 - 수입 : 231억불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62.3.16

- 아측 : 주벨기에 대사 겸임
- 룩측 : 주일 룩셈부르크대사 겸임
- 교역(2016, 한국기준, KITA)
 - 수출 : 0.11억불(타이어코드, 센서, 기타플라스틱제품, 고속도강및초경공구 등)
 - 수입 : 0.82억불(동조가공품, 도금강판, 부직포, 밸브 등)
- 투자현황(~2016 누계, 신고기준)
 - 대룩투자 : 204건, 46.69억불(수출입은행)
 - 대한투자 : 284건, 44.23억불(산업통상자원부)
- 교민현황(2015)
 - 교민 및 체류자 : 127명

□ 북한과의 관계

- 01.3.5 수교
 - 주영국북한대사가 룩셈부르크 겸임
 - 주북한룩셈부르크대사 부재
- 교역(2015, 북한 기준, KOTRA)
 - 수출 : 78천불
 - 수입 : 없음

2-4 독 일

□ 일 반 현 황

- 수도 : 베를린(약 340만명)

- 인구 : 8,141만명('16)
- 면적 : 357,112km²(한반도의 1.6배)
- 인종 : 게르만족
- 종교 : 신교(30.8%), 구교(31.5%), 이슬람교(4%)

□ 정 치 현 황

- 정 체 : 연방공화제(16개주)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회구성(총 630석, '13.9.22 총선)
 - 기민/기사연합(CDU/CSU) 310석
 - 사민당(SPD) 193석
 - 좌파당(Linke) 64석
 - 녹색당(Grüne) 63석
- 주요인사
 - 대통령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Frank-Walter Steinmeier, 사민당)
 - 총 리 :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女, 기민당)
 - 외교장관 :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 사민당)

□ 경 제 현 황

- GDP : 3.4조불
- 1인당 GDP(PPP) : 41,313불
- 무역규모 : 2.3조불
 - 수출 1.3조불, 수입 1.0조불

○ 경제성장률 : 1.7%

○ 실업률 : 4.2%

□ 우리나라와의 관계

○ 통상우호 항해조약 체결 : 1883.11.26

○ 상호 국가승인 : 1955.12.1

- 1958.8.1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 공관장

- 주독 이경수 대사('15.4 부임)

- 주한 독일 대사 : 슈테판 아우어 Stephan Auer 대사('16.9 부임)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2016)

- 수출 : 64억불(자동차, 무선전화기, 선박 등)

- 수입 : 189억불(자동차, 직접회로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 투자현황(누계, 2016신고기준)

- 대독투자(2016년 기준) : 52억불(1165건)

- 대한투자(2016년 기준) : 125억불(1965건)

□ 북한과의 관계

○ 1990.10.3 통독으로 북한-동독 외교관계 종료

○ 2001.3.1 외교관계 수립

- 박남영 북한대사('17.2)

- Thomas Schäfer 독일대사('13.7)

○ 독-북 교역(독일기준, 2015)

- 수출 : 730만 유로(광학, 의약품, 기계류 등)

- 수입 : 370만 유로(의류, 철강, 소금, 유황 등)

3. 방문기관 및 주요활동

3-1 버지니아 한인회



○ 연수 둘째 날 버지니아 한인회를 방문하여 제15대 회장을 역임 중인 김태원 회장으로부터 미국 내 한인 단체 현황 등과 버지니아 주 산하 기관으로 운영 중인 미국 내 이주 한국인의 직업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는 한사랑 종합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청취했다.

○ 세계 정치수도라 불리는 워싱턴에 접한 버지니아 주는 안정된 경제와 미국 최고 수준의 공립학교 및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취업 및 기업 운영과 학업 등에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7,000여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고 한다. 약 700만 세계 한인들의 보금자리인 한인회가 330여개가 있고 미국에도 160여개 한인회가 있는데 그 중 버지니아 한인회는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동포의 이민 정착 및 권익신장을 위해 여러 가지 행사 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초기

이민 정착을 돕기 위해 직업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취업박람회 및 각 기업과 정부기관 취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 김태원 회장은 바쁜 일정 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방문에 감사하면서 버지니아 한인회를 미국 내 3번째로 큰 한인타운으로 성장한 워싱턴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역 한인회이자, 한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과 봉사 에 앞장서는 대표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3-2 한사랑 종합학교



○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지역 동포들의 성공적인 미국 생활을 위해 1989년에 설립된 버지니아한인회 산하 한사랑 종합학교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 시스템과 전문 강사진으로 이루어진 종합 직업 기술 교육기관이다. 매년 신규과목을 추가하고 있다고 하며 올해는 기존 2학기에서 3학기로 운영하는 등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

○ 버지니아 주에서 정식 인허 받은 전문 직업 기술 과목 뿐 아니라, 동포들

의 취미생활 및 자아계발을 위한 과목도 운영하고 있는 한사랑 종합학교는 27년간 수천명의 취업을 도와 한인 동포들의 성공적인 미국사회 조기 정착을 선도해 왔다고 한다.



○ 버지니아주 김태원 회장은 한사랑 종합학교 수강생들의 취업과 전문직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종합학교를 직업훈련소와 직업소개소 역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워싱턴 지역 한인 구직자들을 위한 중심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우리 익산시에는 결혼 이민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민 국가가 다양해 미국 내 한인회처럼 자조 조직 결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민간위탁 해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 등이 사회 적응 등에만 치중되어 있어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사회 정착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 날로 증가되는 다문화 가족의 실질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앞서 보 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이 5분 발언에서 언급했듯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학력 인정 교육기관 설립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연수 중 보고 배운 한사랑 종합학교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는 등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

○ 다양한 다문화 가족 사회정착 마련은 우리 시 최대 당면 과제인 인구 감소 문제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3-3 선진 요양시설 - NMS Healthcare



○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복지가 사회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평균수명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 진출,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부양체계 약화로 질병의 회복

이나 요양을 목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체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 이에 우리 연수단은 선진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보고 배우고자 메릴랜드 주 실버스프링에 위치해 있는 의료기관인 NMS Healthcare를 방문했다. NMS Healthcare는 급성질환 케어, 재활치료, 통증 관리, 호스피스 등을 시행하는 요양병원이다. NMS Healthcare는 최선에 방법으로 그들의 모든 서비스에 단기 재활 및 장기진료에서 최고의 보살핌을 제공하고있다고 자부했다. 개인화된 치료와 모든 환자에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동성, 즉 편안함과 삶의 질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치료 행동 계획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 지역사회 접근성 : 우리 연수단이 Nms Healthcare를 처음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시 요양시설 대부분은 지역주민의 시설 설립 반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읍면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Nms Healthcare는 대로변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시설 입구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 등 우리네 시설과는 상이하게 지역환경과 어우러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설관계자

는 환경이 좋은 외곽지역보다는 이웃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보를 통한 지역접근성과 일상잡화점, 진료, 건강서비스, 쇼핑센터와의 접근성이 용이한 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친절한 의료진** : 요양병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진과 환자간 의사소통인데 Nms Healthcare에서는 환자들과 의료진간 스스럼없이 일상을 물으며 눈인사를 하는 등 전체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시설 관계자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대부분은 고령의 노인들로 가족과의 분리에서 오는 고독감과 소외감을 줄일 수 있는 정서적·심리적인 환경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Nms Healthcare 모든 객실은 케이블과 전화서비스를 갖추고 있었으며 24시간 방문 시간으로 가족들이 선택 가능한 시간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도 했다.



○ **쾌적한 환경** : 시설에 들어서면서 요양병원 특유의 냄새 등을 생각했는데 전체적인 건물 분위기 및 내부 인테리어 등도 밝은 이미지였으며 요양병원이라기 보다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카페 정도의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환자 및 의료진들 표정에서도 밝은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선진

의료시설을 방문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 나라 노인 요양병원의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었다.

○ 노인요양시설이 지역주민의 편의시설로서 정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한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익한 방문이었다.

3-4 세계유산 비교 연구

□ 퀘백역사 지구



○ 인디언 말로 「강이 좁아지는 곳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퀘백은 17세기 초 프랑스의 탐험가 사뮈엘 드 샹플랭이 개척한 도시로 아메리카에서의 유럽 정착의 주요 단계 중 하나를 설명해 주는 곳으로 이곳에 성곽이 지어진 것은 1775년 영국군에 의해서라고 한다. 17세기 후반 프랑스와 영국이 이 지역에서 격렬한 패권 다툼을 벌였는데 1759년 프랑스군으로부터 이 지역을 획득한 영국군은 이후, 1775년 미군의 공격까지 막은 뒤 성벽을 쌓았다고 한다.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프랑스계 주민들은 고유의 전통과 언어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도 주민 대부분이 불어를 사용하고

있어 「작은 프랑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퀘벡 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절벽 위 구 시가지와 그 아래 강을 딸 펼쳐진 로얄 광장 주변, 구 시가지에서 외곽으로 이어진 변화가 어퍼타운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 시가지는 198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 (iv),(vi)을 충족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기준(iv) : 일관성 있게 잘 보호된 도시의 총체인 퀘벡 역사지구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완전하게 요새화된 식민지 도시의 탁월한 사례임

기준(vi) : 뉴프랑스의 옛 수도인 퀘벡은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를 설명하고 있음.

□ 세상을 밝히는 미국의 상징 「자유의 여신상」



○ 자유의 여신상에 대한 최초의 구상은 프랑스 정치가 라블레에 의해 이루어졌다. 라블레는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1865년에 한 연설에서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비를 미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공동으로 제작해서 미국에 세울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프랑스는 미국 독립전쟁에서 자금과 무기를 원조하였고, 직접 파병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영국과 미국 양국이 평화협정을 조인한 곳도 파리였다. 라블레는 프랑스와 미국은 혈맹 관계로 맺어진 우의를 증표하는 기념비적인 선물을 기증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유의 여신상의 원 이름은 ‘세상을 밝히는 자유(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DLEK. RHEO 로마의 자유의 여신인 리베르타스(Libertas)를 상징하며 오른손에는 자유의 횃불을 들고 왼손으로는 미국의 독립선언문 서명 날짜(1776년 7월 4일)가 새겨진 타블라 안사타(Tabula Ansata)라고 불리는 서판을 들고 서있다. 발아래에는 끊어진 쇠사슬이 있는데 이것은 자유와 압제로부터의 해방 자체를 상징하는 모습이다.

세계유산 등재기준(i), (vi)을 충족해 1984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활성화 방안

○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등 익산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문화적으로 융성한 백제 후기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지난해 7월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2곳, 부여의 관북리 유적·부소산성과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와 부여 나성의 4곳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이를 이용한 우리시 관광자원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관광객 유치 등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익산 유적지와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부여 지역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 후 관광객이 76%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 연수 중 자유의 여신상 및 퀘벡 역사지구 등 세계자연유산 등재 도시 및 미국 캐나다의 대표적 관광지와 비교해봤을 때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우리시 세계유산이 관광자원 활성화 가장 큰 어려움은 익산 유적지에 탑과 전시관 외에 달리 볼거리가 없고 유적지간 거리가 멀어 관광객 동선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인근 우리시 관광자원인 보석박물관과 서동공원 등과 코스를 연계 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마련 등 세계유산에 걸맞은 철저한 준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숙박시설과 음식 환경을 정비하고 접근성을 위한 대중교통정비와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익산의 경우 KTX 분기점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연계관광코스 마련이 시급하다.

○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계획 등도 필요할 것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활용을 위해서는 지나친 상업화를 피하고 유산의 가치와 진정성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5 Quincy Market, Distillery district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Quincy Market



○ 퀸시 마켓(Quincy Market)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역사적인 건물이다. 개업 당시부터, 퀸시 마켓은 계란, 치즈, 빵 등 식료품을 주로 취급하는 쇼핑 센터로 이름은 당시 시장이었던 요시아 퀸시 3세에서 따왔다. 1970년대에 동물의 뼈가 발견되어 도살도 행해지고 있었다고 볼 수있다. 현재 퀸시 마켓은 패들 홀과 노스 마켓, 사우스 마켓과 함께 패들 홀 마켓플레이스라는 쇼핑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 재래시장의 쇠퇴 : 미국 대도시 다운타운에 남아있던 재래시장들은

193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운영이 잘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40년대 이후, 주요 고객인 백인 중산층이 다운타운을 떠나면서 위기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더군다나 미국 가정에 냉장고가 보급되고 자동차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교외지역에 위치해 주차장을 제공하고 패킹된 음식을 판매하는 상점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다운타운에 있던 재래시장은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 **전통시장 활성화** : 황폐해지고 버려진 재래 시장을 되살릴 방안을 모색하던 중 개발자 제임스 라우즈는 재래시장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페스티벌 마켓플레이스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지역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역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의미하였고,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었기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 도시민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했다.

고급 프랜차이즈 레스토랑과 카페 뿐만 아니라 지역 특유의 고유 음식점과 푸드센터,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갤러리와 골동품 가게, 공방, 옷, 가게 등을 입점시켜 성공을 거뒀다. 문화와 예술에 기반을 둔 창의적

소매점들 입주를 통해 매일매일 새롭고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삶의 흔적을 느끼게 하였다.

그리고 이 페스티벌 마켓플레이스 개념에 기반을 둔 퀸시마켓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미국 전국 대도시에도 파급되었다. 페스티벌 마켓플레이스 개발은 단순히 다운타운에 위치했던 재래시장 활성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운타운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촉매제로 활용되어 지역을 바꾸는 측면이 강했기에, 다운타운 도시 재생 전략의 위대한 성공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 도입 가능성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모든 재래 시장이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전략을 차용했다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퀸시마켓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임스 라우즈회사가 퀸시마켓의 토지 사용권을 보스턴 시로부터 획득하여, 단일화된 운영주체로서 퀸시마켓을 운영하고 있기에 이벤트 등을 열 수 있고, 매출이 기대 이하로 형편없거나 지역에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일반 재래시장처럼 상점마다 주인이 다른 형편에 무작정 페스티벌 마켓플레이스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각 상점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상위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패하고 말 것이다. 2002년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시작한 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전통시장 매출은 오히려 반토막이 났다고 한다. 시설 현대화 및 주차장 건설만이 정답은 아니며 서비스 개선과 무엇보다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퀸시마켓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정책제안 등을 통해 우리시 전통시장 활성화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도시 재생 성공사례-Distillery district



○ 원도심 쇠퇴로 인한 지역불균형 및 인구유출로 인한 일정지역 인구 집중 문제 등으로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 도처에서 원도심 지역 활성화 마련에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에 우리 연수단은 과거 양조장을 과거와 현재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예술, 문화 및 여러 가지의 역사와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 발전한 토론토의 명소중 하나로 떠오른 Distillery district를 방문 익산시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영감을 얻고자 하였다.

○ 토론토의 역사보존지역인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The Distillery Historic District)는 1832년에 시작된 양조장 자리에 위치한다. 한 때는 몬트리올, 뉴욕, 남미까지 위스키를 수출하는 세계 최고 양조장이었으나 그 건 1990년까지로 마감을 하고 2001년부터는 예술과 문화의 거리로 재탄생되었단다.



○ 이곳 Distillery District는 많은 예술품들과 조각상들이 전시되어있는데 복원과 레노베이션을 적절히 한 덕 분에 구석구석 양조장의 흔적들도 많이 남아 그 자체 많으로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곳곳의 설치미술 작품들은 디스틸러리의 멋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 많은 사람들의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한다. 토론토를 와서 꼭 둘러 보아야 할 관광명소로 이용이 되고 있지만, 현지인들도 주말이 되면 연인과 가족들과 나들이 나와서 사진을 남기는 최고의 장소로 유명하다고 한다.



○ 겉 모양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게 아니다. 건물 안도 기본 골조나 뼈대를 건드리지 않고 고스란히 잘 살리고 있다.



○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와 유사한 사례로 버려진 고가철도를 철거 대신 고가철도가 가진 역사성을 살려 공중산책로로 재탄생시켜 '죽음의 거리'에서 뉴욕의 명물이 된 하이라인 공원이나 죽어가는 항구를 세계적 관

광지로 되살린 이너하버 사업 등에서 보듯 무조건적인 현대화나 시설개선만이 구도심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다. 가진 자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재탄생 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다. 작은 생각의 차이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 민관 협력의 기반 하에 주민참여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우리 익산시도 원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 익산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현황

연번	지 역 명	유 형	비고
1	익산KTX역 동편 원도심지역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역세권
2	동산동 해방촌지역	일반형 도시재생	
3	함열읍 함열시장지역	일반형 도시재생	
4	마동 하이트공장 주변지역	일반형 도시재생	
5	익산KTX역 서편 송학·모현지역	일반형 도시재생	역세권

○ 또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일환으로 「익산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올해 5월 11일부터 6월29일까지 8주간 개최했다.

○ 「익산시 원도심지역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룹별 토론을 통한 사업발굴, 도시재생 성공지역의 현장 방문을 통한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리더의 발굴 및 역량강화 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 도시 재생 아카데미 주민 제안 내용

★ 1조 : 시장3곳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익산역세권 활성화

○ 역사 문화 산책코스 조성

- ▶ 근대유산과 맛집 등 거점지원을 연결하여 산책코스 조성
- ▶ 상가건물들의 2층에 데크를 설치하여 연결브릿지 설치

○ 손맛 체험거리 조성

- ▶ 직접 만들어보고 가져가는 프로그램 구성
- ▶ 서동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중앙시장에서 만들어보는 체험

○ 젊음의 거리 활성화

- ▶ (구)청과건물, 젊음의 거리 빈점포를 이용하여 창업지원시설, 동아리 관련 공간 등 청년을 위한 문화 공간 확충

★ 2조 : 레일(RAIL)로 통하는 익산

○ 철도 문화시설 확충

- ▶ 철도 역사문화 박물관, 트램열차길 형성, 철도안전문화거리 조성

○ 수제 옷가게 패션거리 : 장인 체험의 장 마련

○ 열차시장 운영

- ▶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아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서동, 중앙, 매일시장을 열차로 형상화하여 시장길 형성

○ 공터를 활용한 문화시설 확충

- ▶ (구)경찰서 자리를 활용하여 주차장, 컨테이너 문화공간 조성

○ 먹거리 거리와 축제 운영

- ▶ 하하축제 (하림과 하이트의 브랜드를 강조시킨 치맥 축제)
- ▶ 누들로드 (삼양라면을 활용한 라면 등 면요리 축제)

★ 3조 :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익산역세권 활성화

○ 문화예술의 공간 마련

- ▶ 공방, 갤러리 등을 활용한 문화체험기회 제공
- ▶ (구)경찰서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재생하여 문화기반 시설 확충

○ 음식거리 조성

- ▶ 시장골목을 활용한 지역 음식거리 조성
- ▶ 문화교류를 위한 다문화 음식거리 및 다채로운 음식체험 거리 조성

○ 다양한 문화거점 형성

- ▶ 근대박물관, 열린학교, 서점골목, 다문화지원센터 등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형성

★ 4조 : 남부시장 일대 근대역사문화거점 활성화

○ 원도심 활성화지역과 인접한 남부시장 활성화 방안 제안

○ 근대역사문화 답사길 형성

- ▶ 대교농장, 양키시장골목 등 주요 근대 역사문화 거점을 연결하여 이야기가 있는 거리 조성

○ 남부시장 활성화

- ▶ 대표음식을 개발하여 상품화 전략 이용 (국밥, 통닭 등)

○ 생활형 빈집 예술거리 조성

- ▶ 공가를 활용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예술문화거리 조성

○ 연수 후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반영 등을 통해 앞선 사례와 같이 지역적 특성을 살려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및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참 고

도시재생 수립 및 승인 절차도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 (시장)	전략계획 수립 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	2015. 10. 13. , 2015. 10. 29.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신청 (시장 → 도지사)	2016. 4. 4.
지방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도지사)	(본위원회)-2016. 5. 19. (분과위원회)-2016. 6. 23.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도지사)	2016. 7. 1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시장)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작성 (시장)	현재 진행 단계
공청회 (일간신문에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지방의회 의견수렴 (시장)	
지방 도시재생(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시장)	
국가공모 신청 및 선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2017. 4월 예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내용 보완 (국토교통부 관문심사 위원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승인신청 (시장 → 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도지사 → 지방자치단체 부서 및 관계기관 등)	(국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원이 없는 경우)	<div>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div> <div>도시재생기획단 검토 (국토교통부)</div> <div>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국무총리)</div> <div>국가지원사항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div>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도지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도지사)	
관계 서류 송부 (도지사 → 시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열람 (시장)	
사업 시행	

3-6

관광자원 비교 연구

□ 미국 국회의사당



- 미국 역사를 보면 국회 의사당은 1798년 초대 대통령(조지 워싱턴)때 세워졌으며 1800년부터 의회가 개시되었다. 영국의 침략으로 인해 1814년 국회 의사당 건물이 파괴되었으나 여러번의 복구와 개축으로 인해 상원의원 건물과 하원의원 건물이 1857년에 추가로 지어졌고 1863년 링컨 대통령 때에 철제 돔이 올려져 현재의 국회 의사당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 국회의사당 맞은편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워싱턴 기념비가 있었다.

□ 콜롬비아 대학교



- 컬럼비아 대학교는 뉴욕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세계적 명성의 대학으로 1754년 처음 지어질 당시는 세계무역센터 부근에 있었으며 1897년 블루밍

데일 정신병원이 있던 자리에 현재 캠퍼스가 지어졌다고 한다. 수많은 미국 내 대학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시스템, 교수진,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 받고 있으며 특히 US뉴스&월드리포트 2015~2016년 세계 대학 평가에서 9위를, 2012년 허핑턴포스트가 조사한 '세계 톱 대학의 유명 교수 보유율' 분야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졸업생과 교수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하버드 다음으로 두번째로 많은 101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했다.

□ 하버드 대학교



○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사립대학교이다.

하버드 대학교는 1636년에 매사추세츠 식민지 일반의회가 설립하였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다. 처음에는 '새로운 대학'(New College) 또는 '새 도시 대학'(The college at New Towne)으로 불렸으나, 1639년 3월 13일에 '하버드 칼리지'(Harvard College)라는 이름을 지었다. 젊은 청교도 성직자 존 하버드의 성을 따서 지은 것이다. 그는 유언을 남겨서 4백여권의 책과 재산의 절반인 현금 779파운드를 학교에 기부하였다. 훗날에 여러 학과와 전문대학원들이 통합되면서 하버드 대학교가 되었다. 지금도 학부는

하버드 칼리지라고 부른다.

○ 하버드 대학교는 졸업생과 교수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존 F. 케네디를 비롯해서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다.



○ 하버드 대학교는 1,500km²의 부지에 400여개 이상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19세기에 세워진 역사적, 건축학적으로 유명한 건물들이 모여있다. 그 중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곳은 와이드너 도서관으로 하버드대 졸업생이자 희귀서적 수집가였던 아들 해리가 1912년 타이타닉호에서 사망한 것을 기리기 위해 어머니 엘레노아 엘켄스 와이드너가 내놓은 도서관 기금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 대학 내 하버드 동상 왼쪽 발을 만지면 자손 중에 하버드에 입학한다는 속설이 있어 관광객들이 줄을 이었다.

□ 나이아가라 폭포



○ 매년 1천 4백만 방문객이 찾는 웅장한 세계 명소 중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 뉴욕 주 나이아가라 폴스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 나이아가라 폴스의 국경을 이루는 나이아가라 강에 있는 폭포이다. 이리 호에서 흘러나온 나이아가라 강이 온타리오 호로 들어가는 도중에 형성된 대폭포이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두개의 대형 폭포, 하나의 소형 폭포로 나뉘는데 이는 염소 섬(Goat Island)을 기준으로 캐나다령의 캐나다 폭포(말발굽 폭포, Horseshoe Falls)와 미국령의 미국 폭포(American Falls)로 구별된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장관을 지켜보면서 오직 자연만이 창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아름다움의 조합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감상하는 곳은 캐나다 쪽인데 그 이유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전경이 캐나다 쪽에서 잘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급 호텔과 카지노 등 위락시설은 대부분 캐나다 쪽에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신은 공평하다는 말처럼 미국에서는 관광자원을 캐나다에 넘겨준 대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엄청난 수량을 이용하여 수력발전을 일으킨다고 한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수력발전소를 통해 발생한 전기는 뉴욕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 토론토 신·구 시청



○ 구시청은 1899년도부터 1966까지 70년 가까이 토론토를 지켰으며 완공되었을 당시에는 토론토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자 북미에서 가장 큰 공립 건축물로, 1965년 베이 스트리트 맞은 편에 신시청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온타리오 정부의 법원청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 신시청은 1957년도 국제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약 50여개의 쟁쟁한 설계안 중, 핀란드 출신의 건축가 '빌리오 레벨'(Viljo Revell)의 작품으로 1965년에 완공되었다.

시청의 디자인은 높이가 다른 반원형 쌍둥이 타워 사이를 낮은 건물이 연결하고 있는 형태인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사람의 눈동자 모양을 하고 있다. 건축가는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이러한 설계를 했다고 한다.

○ 토론토 관광객 대부분은 신구 시청사를 방문한다고 한다. 시청사가 관광자원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옛날 건축과 현대 건축이 공존하며 존재하는 시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들으니 관광객이 찾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익산시 청사는 1970년 12월 준공된 이래 극심한 노후화로 수차례 보수·

보강 공사 시행에도 불구하고 겨우 안전등급 C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신청사 건립이 절실하다. 신 시청사 건립시 토론토 신구시청사 건립 공공기관의 문화 마인드를 벤치마킹하여 시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천섬



○ 세인트 로렌스 강에 떠있는 180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곳이다. 이 중 절반가량은 캐나다령이고 나머지는 미국령이라고 한다.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섬이 365일 물 위에 솟아 있어야 하고, 최소한 2그루 이상의 나무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국제다리가 있으며, 이곳에는 하트섬으로 유명한 죠지볼트성이 있다. 캐나다 인디언들은 고요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곳을 ‘위대한 영혼의 정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 뉴욕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은 . 세계 무역 센터가 지어지기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9.11 테러로 세계 무역 센터가 붕괴되고 나서는 다시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었다. 이 빌딩을 정점(頂點)으로 하는 마천루군은 20세기 전반(前半) 뉴욕의 비즈니스 기능의 집중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는 상징이다.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메트로폴리탄 미술 박물관은 미국 뉴욕 주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세계적인 미술관이다. 1866년에 파리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미국인들의 회합에서 설립이 제안되어, 1870년에

소규모로 개관하였다. 1880년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으며, 기금을 통한 구입과 기증 등으로 소장 미술품은 급증하게 되어 영국의 대영 박물관, M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와 더불어 세계 4대 미술관 중의 하나이다.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특색은 그 소장 유물의 폭이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전 시대와 지역에 걸쳐져 17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대한 규모 때문에 하루에 다 보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 전시관을 둘러 보던 중 어렵게 한국관을 찾았는데 내부사정으로 임시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여서 몹시 아쉬웠다.



○ 특이할 점은 도네이션 입장으로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들을 배려해 안내데스크에는 각국 언어로 제작된 안내도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도 구비되어 있었다. 백제역사지구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미륵사지나 우리 시 기타 관광지에도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다양한 언어의 안내도가 제작되길 염원한다.

5. 연수 후기

○ 8박 10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보고 배우며 느끼려 기획단계에서부터 연수단 전원이 각오를 다질 정도로 일정을 빼곡히 채웠던 연수이다.

○ 선진 노인 의료 시설의 지역사회 접근성, 첨단 의료 장비, 쾌적한 시설관리 및 가족같이 친절한 의료진 등 향후 우리시 노인 의료복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우리시 노인요양시설에 접목하고 기위해 향후 의정활동 시 적극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 퀸시마켓(Quincy Market)방문을 통해 얻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및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Distillery District)의 원도심 재생사례에서 보고 배운 발상의 전환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다문화 가족의 실질적인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기술 교육 마련, 세계유산 등재 도시의 관광자원화 등 연수 간 얻은 많은 숙제들을 향후 의정활동 시 적극 노력하여 하나 하나씩 풀어갈 것이다.

○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일정을 마친 매일 저녁 각자 느낀 바를 토의하는 간담회 시간도 갖을 정도로 열의에 넘쳤던 연수이며, 연수 간 이동 중에도 익산시 도시 개선에 도움이 될만한 것은 없는지 두루 살피고 연수 활동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려 시민과 의견을 나누는 등 힘든 일정 속에서도 익산 시민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연수단 전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